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논함



정 석 종
전남대 총장

얼마 전 중국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다. 여정을 마무리할 단계에 상해에서 일박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투리 시간이 남아 상해시 박물관을 관람하기로 했다. 관람 막바지에 공자의 영정 앞에 우연히 서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는 문자 그대로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멸시를 받아 왔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인지 잠깐이나마 흥미 있게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대선배에게 예의를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속으로 '오늘의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차가 대기하기로 한 장소에 나갔으나 문제가 생겨 한 시간쯤 더 기다려야 한다는 진화를 받고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다리는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박물관의 매점에 들렀다. 그곳에는 중국 관련 서적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 이것저것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서는 이것이 으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좋았다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과 "중용", "논어" 등의 고전을 영어로 대역해 놓은 것이 있어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한문을 영어로 어떻게 옮겨 놓았나 호기심도 있고 해서 첫 페이지를 열어 보았다.

다 알다시피 논어의 첫머리는 학이시습(學而時習)으로 시작된다. 나는 중학교 이래로 이것을 "배우고 때로 익히니" 그렇게 기억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영역판에서는 "배우고 제 때에(in due time) 익히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것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몇 권의 책을 사 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일을 곰곰 생각하다가 언젠가 태국에서 일어난 '원숭이 소년' 사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 소년은 어려서

“

모든 학생은 다 영리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영리한가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배우게 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

미아가 된 뒤 원숭이가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원숭이 소년에게 말을 가르쳐 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으며, 그 이유는 말을 배워야 할 시기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릇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할 제 때가 있고 그것을 놓쳐 버리면 배울 수 없게 되거나 배워도 아주 어렵게 배우게 된다는 자명한 논리가 거기 숨어 있다. 그러니 제 때에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논어의 첫머리가 왜 '학이시습'으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 때가 아닌 것을 배우고 익혀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외국어 교육의 적정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 말의 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면서 학생들이 제때에 익혀야 할 것을 익힐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교교육도 부족해서 또 학원에 가서 과외로 배우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일부 외국 언론들이 이것을 약취노동 착취에 비유해도 변명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중등학교의 공통필수 과목을 6개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오후 2시 남짓이면 학교를 파해 준다. 왜 우리만 이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은 다 영리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영리한가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배우게 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아니라 학습만이 인간을 완성시켜 갈 수 있다는 대전제를 모든 교육 현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랜 적폐를 단번에 해소하려는 시도가 반작용을 불러와 개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한국의 교육 개혁의 실패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 중등교육의 정상화 실패는 철학의 빈곤보다는 실천 전략상의 완급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 정원보다 진학 희망 학생의 수가 더 적은 상황이 오게 되었다. 이 기회를 중등교육 정상화의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도 놓치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아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민**